月曜 詩論

한동훈 위원장의 절규 대통령이 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불과 열을 남짓 남겨두고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년에 이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도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날지로 모른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못해도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전의 카드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해 한 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 되면 아무 볼이든 힘껏 내쳐야 한다"고 한 말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다.

군정을 종식시키면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당시 김영삼, 김종필 총재와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청장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수직 상승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러던 그가 문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사정 담당 비서관들을 동원했다가 윤 총장의 촉에 걸려 한때 불운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하는 듯했었으나 일약 대통령까지 거머쥐는 정치적 행운아가 됐다.

하지만 아무런 정치기반도 없이 대통령 자리만 얻었을 뿐 취임 이후 2년 내내 자신의 정적이 돼버린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동안 사사건건 탄핵을 들먹이며 100석 남짓한 여당을 옥죄이면서 발목을 잡으면서 나온 것이 '거부권의 달인'이라고 비꼬임을 듣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데 크게 노력해 온 것은 귀중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의대 증원 문제도 적지 않은 저항을 받고 있어도 국민 60% 이상이 동의해주고 있다는 데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더는 야당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위원장을 비롯한 후보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도 귀담아야 들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언해준 것처럼 용산과 당이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열어줘야 가능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도 자존심을 접고, 비서실 참모들과 당 중진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숫자 재검토나, 이종섭 대사의 거취 문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고해봐야 한다.

물론 이 대사가 '해병대 장병 사고' 은폐에 직접 연루됐다는 뜻은 아니다. 자칫 이 대사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들어줘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

사 설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드는 순간 패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쳐 과반의석 이상을 호언장담하는 것이 '부자가 몸조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사당화'와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던 공천이 끝난 상황에서 주요 격전지가 박빙 열세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바뀌는 상승세에 올라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혁신당까지 합류할 경우 160석 이상에서 심지어 200석까지도 넘보는 인사가 나오는 등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에서 '판세 분석'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지역구 130~140석에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3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찌감치 승세를 굳혔다고 밝히기까지 했었다.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부잣집에 쌀 한 말 더 준다'는 말처럼 승기를 굳혔다는 허세를 퍼트려 중도층을 통해 현재의 열세를 만회해보겠다는 술수일 수도 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근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커트'에 승복하면서 백의종군을 밝히고, 이재명 대표와 포옹까지 하니까 비명횡사와 친명횡재가 정립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민주당에서 공천학살을 당하고 쫓겨난 인사들이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미리부터 승리에 도취 돼 샴페인이라도 터트릴 기세다.

한국갤럽은 지난 26일~28일까지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37%, 민주당 29%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24일~28일까지 한국경제신문이 전문 조사기관에서 의뢰해 조사한 후보별 지지율에서도 지금까지 뒤지고 있던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39.8%)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34%)를 앞섰고,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40.2%)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34.5%)에게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세에 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일명 '엄문어'로 일컬음 받고 있는 시대정신연구소 엄경문 소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170석이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집스럽게 접지 않고 있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서여의도 재개발과 국회 세종 이전'을 비장(秘藏)의 카드로 내놓은 것처럼 선거 막판에 역전이라는 대 전환의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위원장은 민주당처럼 희희낙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후보자들의 입단속에 여념이 없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이후 언론사들의 종합적인 판세분석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엄 소장이 '80석의 축복과 180석의 저주'라고 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와 골프는 머리를 드는 순간 필패'라는 원칙을 민주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카시아꽃

박월복 시인

설렘을 한 아름 안은 가슴이
붉은 아카시아 길을 걸어간다

오랫동안 숨겨 온 사랑이
살며시 손을 잡자 가슴까지 콩닥거린다

심장은 아카시아꽃 피어나듯 흔들리고
아카시아 꽃잎은 바람 따라 산들거린다

흰 구름 바람 타고
살며시 다가온 초여름은 싱그럽고

아카시아꽃은 태양빛에 타올라
나비처럼 너울거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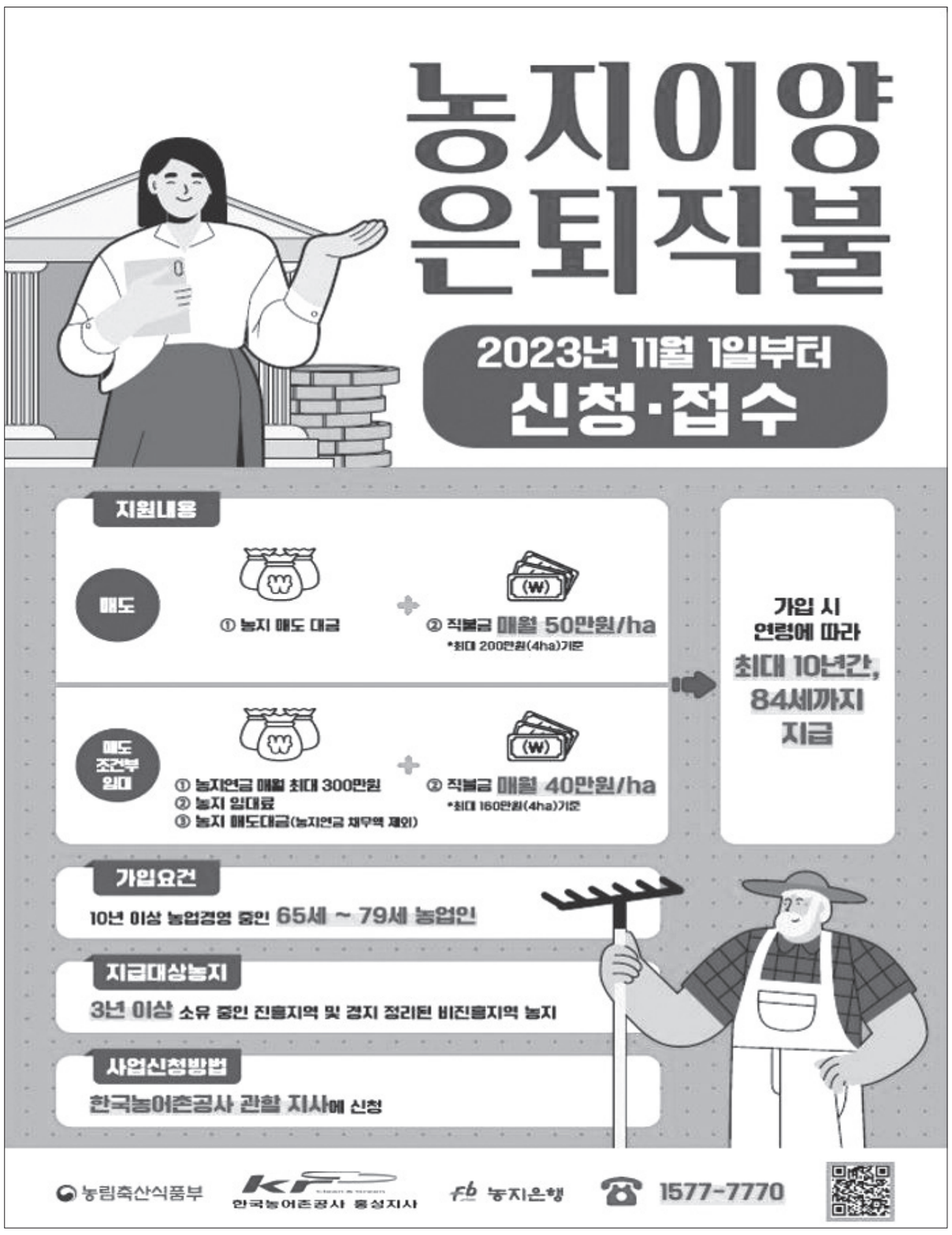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카시아꽃처럼 반짝인다

아카시아꽃을 닮은 해맑음
오뉴월의 햇살
그대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듯

사랑은
아카시아 피어나듯 시작된다

해맑은 그대의 웃음이
나의 붉은 심장을 멈춰 세우듯

충남 유일의 일간지
투데이忠南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대 표 이지웅 발 행 처 투데이충남
발 행 인 석지후 인 쇄 인 김영석
논 설 실 장 이회윤 등 록 번 호 충남, 가00020
사 업 등 록 2014. 12. 22.

천 안 본 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43 304호
내 포 본 사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412호
대 표 전 화 041) 592-7575 / 333-3545
팩 스 041) 332-3545
[구독료] 월 15,000원
구독 후원 농협 : 351-0866-4118-13 투데이충남
광고 문의 041) 592-7575
기사 제보 apple2585@nate.com